

다독다감

1월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새로배움 ×  천하포문

차가운 거울을 맞으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울을 만난다. 앉지도 서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의 모습이지만 예년과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나는 존재한다. **앞으로의 1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11월까지 우린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슬한 희열과 좌절을 겪게 될 지도 모른다. 그래. 많은 일들이 몰아치는,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기 힘든, 이 무거운 시간 앞에 우린 홀로 서있는 것이다.

그대가 묻는다. **대학에만 진학하면 되는 것 아닌가, 성적만 오르면 되는 것 아닌가.** 대학진학이라는 미명 아래, 존재에 대한 치열한 고민조차 사치라고 생각해버리기 쉬운 이 시간 앞에 나는 한 번 더 그대에게 **진지한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보길 권한다.** 세 번의 수능을 봤던 내가, 선명하지 않은 기억 속 언저리에 지금까지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박제화 되어버린 그 시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진득한 사랑 이야기를 속삭였던 때도 아닌 바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았던 수험생 시절이다.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무겁게 침묵하고 치열하게 반성했던 그 시간들이 내 존재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인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치열한 반성을 안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대에게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어두운 외길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그대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것만 따라간다면 적어도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을 것. 그 빛은 많은 의미로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별'. 나는 그 별을 두고 **'젊음'**이라 부르고 싶다.

부모님과 의 갈등, 친구들과 틀어져 버린 관계, 성적표에 적힌 별 볼일 없는 숫자 몇 개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지난날의 '내'가 있다. 열등감으로 얼룩진 내게 **'젊음'**이 묻는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한 번도 제 힘으로 일어나보지 못했기에 애써 외면해왔던 **'젊음'**의 도전적 질문 앞에 나는 무엇이든 답을 해야 옳은 것인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 앞에 굴복해버린 자존감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겁이 난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관성처럼 굳어져 버린 패배감에 다시 반문하는 그대에게 젊음이 말한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대를 난 믿는다.**

그 시간을 먼저 지나온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시련들이 그대를 깔보고 덤빌지라도 굴하지 말자. **우린 10대의 마지막, 20대의 시작에 서있는 '젊음'이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는 '용기'다.** 여기 너를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라. 그동안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힘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니까.

[01 ~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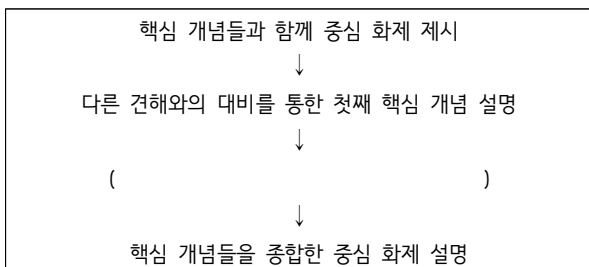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해를 위해서는 이해의 배경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현대 해석학의 거장인 가다머는 '선이해'와 '지평 융합'의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선이해란 어떤 대상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일종의 선입견을 의미한다. 이성적인 이해를 중시했던 ㉠ 계몽주의 학자들은 선입견을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잘못된 생각이라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선입견은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와 달리 가다머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선입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선입견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임의로 만들거나 제거할 수 있는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문화나 철학, 역사와 같이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에 의해 형성된 사고를 뜻한다. 이러한 선입견은 이해의 기본 조건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선이해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이해의 과정은 어떠한가? 가다머는 이를 '현재 지평'과 '역사적 지평'이 결합되는 '지평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현재 지평이란 인식의 주체가 선이해를 바탕으로 형성한 이해로, 이해 주체의 머릿속에 형성된 지식이나 신념 등과 관련이 있다. 반면 역사적 지평이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이해의 산물로, 텍스트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지식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해의 과정이란, 서로 다른 두 지평이 만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의 융합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되어 나간다. 따라서 두 지평이 융합된 결과 형성된 지평은 주체가 기존에 가졌던 현재 지평과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이해의 과정으로서 지평 융합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주체가 가진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평이 되고, 이것이 다음 이해의 선이해로 작용하며 또 다른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순환 과정을 고려할 때, 이해는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도상(途上)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가다머가 말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01 윗글의 논지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둘째, 셋째, 넷째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
- ② 첫째 핵심 개념과 둘째 핵심 개념의 관계 설명

- ③ 관련 있는 개념들을 통한 둘째 핵심 개념 설명
- ④ 첫째 핵심 개념과 대비되는 둘째 핵심 개념 설명
- ⑤ 둘째 핵심 개념을 통한 첫째 핵심 개념의 보충 설명

0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입견을 이성의 일부로 인정하였다.
- ② 개인보다는 집단의 생각을 중시하였다.
- ③ 비이성적인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선입견을 통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03 '가다머'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민수는 ㉠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 동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텍스트를 읽고, ㉢ 인간은 선악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민수는 인간 본성에 관한 ㉣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다룬 텍스트를 읽고, ㉤ 인간 본성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 ① 민수가 ㉠라는 현재 지평을 갖게 된 것은 역사적 지평과의 지평 융합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② 민수는 ㉢와 ㉣의 지평 융합을 통해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 ③ 민수에게 ㉢, ㉣, ㉤, ㉥는 동일한 시점에 모두 역사적 지평으로 작용한다.
- ④ 민수의 현재 지평은 ㉢, ㉣와 순차적으로 지평 융합하면서 확장되어 간다.
- ⑤ 민수는 ㉤에 이르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게 된다.

[04 ~ 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이 '자유', '민주', '평화' 등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할 때, 그 개념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경우, '구속받지 않는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이는가 하면, '자발성'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개념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늘 있어 왔다. 바로 이러한 현상에 ㉠ 주목하여 출현한 것이 코젤렉의 '개념사'이다.

개념사를 역사학의 한 분과로 발전시킨 독일의 역사학자 코젤렉은 '개념은 실제의 지표이자 요소'라고 하였다. 이 말은 실태처럼 얽혀 있는 개념과 정치 사회적 실제, 개념과 역사적 실제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 지침으로 작용한다. 그에 의하면 개념은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 등의 실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동시에 개념은 정치 사회적 사건과 변화의 실제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근대화' 개념을 통해 근대화라는 특정한 방향의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근대화'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대화라는 특정한 사회 변화의 목표에 맞게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는 ㉢ 동인으로 작용한다.

개념은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 등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그것을 기록, 해석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러한 주체들, 즉 '역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룬다. 개념사에서는 사회 역사적 현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층들을 파헤치면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이 과정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떤 ㉣ 함의들이 거기에 투영되었는가, 그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등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개념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보다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개념사에서는 과거의 역사 행위자가 자신이 경험한 '현재'를 서술할 때 사용한 개념과 오늘날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역사로 번역하면서 양자가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절차를 밟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념사에서는 개념과 실재를 대조하고 과거와 현재의 개념을 대조함으로써, 그 개념이 대응하는 실재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의 이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 왜곡하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코젤렉은 과거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묘사'를 주장하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을 비판하고, 과거의 역사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재와 현재 역사가가 만든 역사적 실재를 의미 있게 소통시키 고자 했다.

04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 ① 개념사의 연구 방법
- ② 개념사가 갖는 한계
- ③ 개념사의 탐구 대상
- ④ 개념사가 출현한 배경
- ⑤ 개념사에서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

0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② ㉡: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 ③ ㉢: 연관성이 먼, 간접적인 원인.
- ④ ㉣: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 ⑤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06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의리(義理)'나 '예(禮)'와 같은 개념들은 조선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정치 사회적 개념으로, 이를 둘러싼 정의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리'와 '예'의 의미가 변화하였고, 그 정치 사회적 역할도 축소되었다.

- ①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와 오늘날의 '의리'와 '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려 하겠군.
- ②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의 논쟁에 사용된 '의리'와 '예'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연구하려 하겠군.
- ③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의리'와 '예'의 개념에는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루고 있다고 여기겠군.
- ④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에 사용된 '의리'와 '예'의 개념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실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군.
- ⑤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와 '의리'와 '예'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리'와 '예' 개념을 한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겠군.

07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한다.
 ㄴ. 개념은 역사적 실제 속에서 사회가 추구했던 목표를 배제한다.
 ㄷ. 개념사는 역사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다.
 ㄹ. 개념은 역사 속의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8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질(脂質)을 대표하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산은 탄소 사슬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갖는데, 탄소 사슬 내의 탄소와 탄소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한다.

(나) 포화지방산에서 나타나는 탄소 결합 형태는 연결된 탄소끼리 모두 단일 결합하는 모습을 띤다. 이때 각각의 탄소에는 수소가 두 개씩 결합한다. 이 결합 형태는 지방산 분자의 모양을 일자형으로 만들어 이웃하는 지방산 분자들이 조밀하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분자 간 인력이 높아 지방산 분자들이 단단하게 뭉치게 된다. 이 인력을 느슨하게 만들려면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지방산을 함유한 지방은 녹는점이 높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방산 분자에는 탄소 사슬에 수소가 충분히 결합되어, 수소가 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화지방산이라 부르며, 이것이 들어있는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한다.

(다) 불포화지방산에서 나타나는 탄소 결합 형태는 연결된 탄소들끼리 단일 결합하는 가운데 일부의 탄소 쌍에서 이중 결합하는 모습을 띤다. 이때 이중 결합하는 탄소 쌍의 탄소에는 단일 결합한 탄소들과 달리 수소가 하나씩만 결합한다. 자연 상태의 불포화지방산 대부분은 이중 결합 탄소 쌍에 있는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지방산 분자는 탄소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구부러지는 모양이 나타난다. 이중 결합이 여러 개이면 구부러짐 현상도 여러 개 생기는데, 이러한 모양 때문에 이웃하는 지방산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멀게 연결되어 분자 간의 인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은 녹는점이 낮아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탄소 이중 결합 수가 많을수록 녹는점은 낮아진다. 그리고 이 지방산 분자는 탄소 이중 결합 때문에 분자 내에 수소가 불포화되어 있으므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이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을 불포화지방이라고 한다.

(라) 포화지방은 체내의 장기 주변에 쌓여 장기를 보호하고 체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에너지로 전환되어 몸에 열량을 내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이 지방이 저밀도 단백질과 결합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부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 내부의 압력을 높여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 지방과 같은 동물성 지방, 팜유와 코코넛 유,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표적인 ㉡포화지방으로 이것이 들어 있는 음식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피하 및 장기 내부에 누적되어 비만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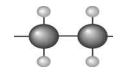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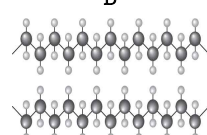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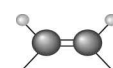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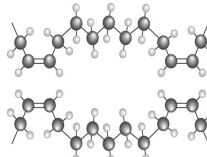
(마) 불포화지방은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지방은 세포막의 투과율을 높여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이 지방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입자들을 녹임으로써 혈액의 순환이 잘 되도록 돕는다. 아울러 이것은 뇌와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과 학습 능력, 시각 기능 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고기 기름, 올리브기름과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 땅콩 같은 견과류의 지방이 불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0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포화지방은 혈관 벽의 콜레스테롤 입자들을 녹인다.
- ③ 포화지방은 체내의 장기 주변에서 장기를 보호한다.
- ④ 불포화지방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돕는다.
- ⑤ 중성지방은 함유한 지방산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뉜다.

09 <보기>는 (나)와 (다)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탄소 결합 형태	이웃한 지방산 분자의 모습
<p>A</p> 	<p>B</p> 
<p>C</p> 	<p>D</p> 

● 탄소
○ 수소

- ① A의 탄소에 결합한 수소의 수가 C의 탄소에 결합한 것보다 더 많다.
- ② B 구조의 지방산을 가진 지방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은 분자 간 인력 때문이다.
- ③ B 구조의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은 D 구조의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보다 녹는점이 높다.
- ④ C의 결합으로 인해 D의 분자 간 인력이 낮아진다.
- ⑤ D의 지방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은 탄소끼리의 단일 결합 때문이다.

10 (라)와 (마)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 ② (라) 코코넛 유로 튀긴 음식을 즐겨 먹으면 혈관계 질환이 적게 발생할 거야.
- ③ (마) 생선을 많이 먹으면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 ④ (마) 들깨에서 나온 기름을 많이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질 거야.
- ⑤ (마) 올리브기름을 이용한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의 쇠퇴를 늦출 수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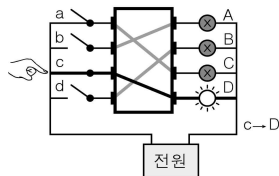
11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가 ㉓ : ㉔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맵시 : 자태 ② 뿌리 : 나무
- ③ 두부 : 단백질 ④ 옥수수 : 강냉이
- ⑤ 생성 : 소멸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암호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전치(轉置) 방식과 환자(換字) 방식이 있다. 전치 방식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평문의 철자 위치를 바꾸어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이고, 환자 방식은 평문 철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다른 문자로 바꾸어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더 복잡하게 하고자 할 때는 전치 방식과 환자 방식을 함께 적용한 혼합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암호화의 규칙을 '알고리즘(algorithm)'이라 하고 역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푸는 해독의 규칙을 '키(key)'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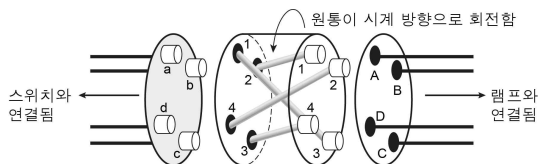
암호의 원리는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암호 장치들로 구현되었다. 특히 전신(電信)에 의한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기 암호 장치가 개발되었다.



[그림 1] 전기 암호 장치의 구조

[그림 1]에서 스위치 a, b, c, d와 연결된 램프 A, B, C, D로 구성된 이 장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키보드에서 평문 철자를 입력했을 때 불이 켜지는 램프가 암호 철자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처럼 송신자가 평문 철자 c를 입력했을 때 c에 연결된 램프 D가 켜지고 이 암호 철자 D를 전신으로 받은 수신자는 암호 철자인 D를 눌러 D에 연결된 원래의 평문 철자 c를 얻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기 암호 장치는 회로 구조가 파악되면 쉽게 암호가 노출될 수 있고, 그런 경우 다시 회로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戰時)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회전하는 원통 속에 전기 회로를 넣은 '에니그마'가 개발되었다.



[그림 2] 에니그마의 구조

에니그마는 원통이 회전함에 따라 스위치와 램프의 연결 상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회로 구조를 조작하지 않고도 평문 철자와 암호 철자의 대응 규칙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통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문 'b'를 입력하면 [그림2]의 회로 구조를 거쳐 암호문 'A'로 나타나지만(b-2-1-A), 원통이 시계 방향으로 1/4바퀴 돌아간 경우에는 같은 'b'를 입력하더라도 원통 속의 회로가 다른 단자와 연결되면서 암호문 'C'로 나타나게 된다(b-3-4-C). 따라서 암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통 바퀴 내부의 회로 구조뿐만 아니라 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원통이 언제, 얼마나 회전하는지 등 원통의 회전 규칙도 함께 알아야 한다.

12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 암호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니그마를 개발했다.
- ②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는 전기 회로를 통해 환자 방식을 구현했다.
- ③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의 스위치는 평문 철자, 램프는 암호 철자를 나타낸다.
- ④ 에니그마는 전기 암호 장치와 같이 회로 구조만 알아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 ⑤ 전기 암호 장치는 에니그마와 달리 대응 규칙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13 위 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널 사랑해'는 영희가 전하고 싶은 평문이군.
- ② '널 사랑해'를 '해랑사널'로 바꾼 것은 전치 방식이군.
- ③ '해랑사널'을 'gofkdtksjf'로 바꾼 것은 환자 방식이군.
- ④ '한글 입력 모드에서 이 영문을 입력하고, 그걸 거꾸로 읽어'는 알고리즘에 해당하는군.
- ⑤ 철수가 보낸 '해랑사도나'는 전치 방식으로 보낸 것이군.

14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암호 철자'는?

[그림 2]의 에니그마로 암호를 보내고자 한다. 에니그마에 첫 번째 평문 철자를 입력할 때는 원통이 고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평문 철자를 입력할 때마다 원통이 반시계 방향으로 1/4만큼 회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자. 평문 철자 'bc'를 입력했을 때 나올 암호 철자는 () 이다.

- ① AB ② AC ③ BC ④ DA ⑤ DB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예술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양식이나 이미지 ㉠ 차용을 거부했다. 이와 달리 개념미술가들은 예술적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통속적이라 인식되었던 기성품들까지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예술 작품과 다른 양식의 작품을 창조했다. 특히 불탕스키는 비전문가가 사적 일상이나 행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찍은 아마추어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오브제로 사용하여 전시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했다.

불탕스키가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한 것은 그것이 갖는 특징인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데오그램은 사회가 공유하는 사진의 ㉡ 전형적 스타일을 의미하는데, 아마추어 사진에서의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 고정된 시선, 상황에 따른 정형화된 자세와 같은 전형적인 포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소시오그램은 개인들 간의 사회 문화적 관계 양상을 드러내는 사회적 지표이다. 결혼식이나 축제 등을 기록하고 기념할 목적으로 찍은 아마추어 사진은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감정을 재확인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이끄는 역할도 한다.

불탕스키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오랫동안 ㉢ 고착화된 사회적 규범체제나 공동체의 특징과 같은 일종의 문화적 코드를 읽게 함으로써, 작품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가족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한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는 ㉣ 오브제인 아마추어 사진이 나타내는 이데오그램을 통해 문화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고, 소시오그램을 통해 특정 가족의 삶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자신의 과거나 동시대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는 사람들이 사진을 진짜라고 믿는 마음을 역이용하여 사진이 갖는 사실성과 허구성이라는 양면성을 드러냄으로써, 사진에 부여된 진실성을 의심하고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 '진짜'처럼 여기도록 아마추어 사진을 반복적으로 재촬영하여 원래 사진의 이미지를 일부러 흐리게 만들거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을 재배열하기도 했다. 또 드러내 놓고 제목이나 설명과 같은 텍스트를 사진과 엉터리로 ㉤ 조합하여 감상자가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진이 보여 주는 것이 진실인지, 텍스트가 보여 주는 것이 진실인지 감상자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불탕스키는 일상적인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보편적이고 공통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사실과 허구가 공존하는 사진의 양면성을 작품을 통해 드러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감상자의 의식적인 이미지 읽기를 ㉥ 권고하고 있다.


* 오브제 : 어떤 대상이 작품의 소재가 되어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은 사라지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켜 예술 작품화될 때의 사물을 이르는 말.

15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미술의 전개 과정
 - 불탕스키 사진이 가지는 양면성을 중심으로
- ② 불탕스키 작품 세계의 특징
 - 오브제로서의 아마추어 사진 활용을 중심으로
- ③ 불탕스키의 오브제 활용 기법
 - 가족사진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 ④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의 관계
 - 불탕스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 ⑤ 불탕스키의 작품이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
 - 사진의 문화적 코드를 읽는 방법을 중심으로

16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1939년에서 1964년 사이, D가족 앨범>

지금 보시는 것은 '1939년에서 1964년 사이, D가족 앨범'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확대한 것으로, 불탕스키가 한 친구의 가족사진들을 빌려 와 상업 사진작가에게 다시 찍도록 한 다음, 그것에 불탕스키 자신의 가족사진을 일부 섞어서 재배열하고 진짜 한 가족의 사진 앨범처럼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 ① 감상자가 작품 속 사진을 '진짜'처럼 여기게 하기 위해 기존의 사진을 재촬영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감상자가 예술의 순수성을 읽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을 재배열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감상자가 제시된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 작품의 실제 내용에서 벗어난 제목을 붙였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감상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감정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가족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감상자가 고착화된 문화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로 정면을 응시하는 전형적인 자세의 사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군.

17 윗글의 ㉣과 <보기>의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관습적인 미의 기준과 예술 개념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 '레디메이드'는 마르셀 뒤샹에 의해 언급된 용어로, 산업 생산물이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단순히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것을 말한다. 이로써 ㉠ 예술가가 선택하여 작품화한 산업 생산물은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잃게 되고,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진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원래의 장소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된다.

- ①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답습한다.
- ② 일상 공간 속에서도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
- ③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면서 예술 작품이 된다.
- ④ 원본의 재가공이나 재구성을 통해 예술 작품이 된다.
- ⑤ 대중이 예술성을 인정해 예술가가 선택한 소재이다.

18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씬.
- ② ㉡ :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 ③ ㉢ :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
- ④ ㉣ :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여.
- ⑤ ㉤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고.

[01 ~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날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 막힐 마음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노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만에 들리라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

(나)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술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벅차리
봄이 오는 이 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술술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술가지에서 술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기 이는 바람이
여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숲에서」 -

(다)

내 이미 백구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
㉠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돌을 가려낼꼬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 가랑비 낚시터에 낚시대 제 맛이라
㉢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
네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
㉣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淸濁)을 모르래라

- 이별,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 -

* 벼슬 제안을 들은 귀를 영수에 씻은 허유와 그 물을 소에게 먹이지 않은 소부의 고사에서 차용한 것임.

0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③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④ 자연물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 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02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시구를 반복 변주하여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랑나비'와 (나)의 '박새'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② (가)의 '눈보라'와 (나)의 '찬 서리'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 ③ (가)의 '달'과 (다)의 '달'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매개가 된다.
- ④ (나)의 '솔이파리들'과 (다)의 '붉은 잎'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이다.
- ⑤ (나)의 '솔숲'과 (다)의 '강'은 화자의 구체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야곡」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 하의 냉혹한 현실을, 향구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시적 상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이끼'만 푸를 '무덤'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고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
- ② '검은 꿈'이 '슬픔'과 '자랑'을 집어삼킨다는 표현에는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③ '매운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그림자'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어.
- ④ '숨 막힐 마음속'에는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던 시인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 ⑤ '강맘'을 '차디찬'으로 수식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어.

0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리고', '지네' 등에 드러난 하강 이미지는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 ② '묵은 잎'은 화자가 지나온 삶을, '새 잎사귀'는 화자가 기대하는 삶을 함축한다.
- ③ '이 세상', '이 고요한 솔숲' 등에서처럼 시적 공간을 한정하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공간이 지닌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④ '내 마음 가장자리', '솔숲 끝으로'에는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이 부각되어 있다.
- ⑤ '봄산' → '봄이 오는 이 숲' → '봄이 오는 이 솔숲'으로 시상을 구체화하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06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별은 갑자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옥계산에 은거하였다. 그는 속세의 명리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한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정신을 지향했다. 이 시에서는 현실 세계를 혼탁한 세상으로 여긴 반면, 자연을 친화적 공간으로 생각하며 그 속에서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① ㉠ : 혼탁한 세상에서 멀어져 자연에 친화된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② ㉡ : 은일의 공간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 화자와는 달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 ④ ㉣ : 속세의 명리를 중시하지 않는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 ⑤ ㉤ : 세상의 청탁을 구분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07 ~ 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사 씨는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나 첩 교 씨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 씨는 온갖 고난을 겪다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여중(차환)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 씨는 통곡하다 잠들고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다.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 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차를 마시고 사 씨에게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시비들이 반드시 의심할 거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①“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 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석 옆자리에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낭랑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

②“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반드시 인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 심려치 마세요.”

이어서 동쪽 벽 자리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대가 말한 위나라의 장강*이랍니다.”

또 응모가 밝은 꽃과 같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한나라의 반첩여*예요.”

또 서쪽 벽 자리의, 거동이 한아하면서 얼굴이 반첩여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후한의 조대가예요.”

또 얼굴이 살지고 피부가 조금 검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양처사의 아내인 맹 씨예요.”

사 씨가 다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③“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입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부인은 각각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다.

사 씨가 절하고 물러나오는데, 낭랑이 말했다.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여동에게 명해 사 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 씨가 대전에서 내려오자마자 대전에 열두 개의 주렴이 드리워졌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사 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유모와 차환은 사 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혼백이 어디라도 다녀오셨나요?”

사 씨가 이어 꿈속에서 낭랑을 만나 서로 문답한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서 저 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오게.”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현판에 ‘황릉묘’라 써 있으니, 정말로 아황과 여영의 묘당이였다.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빛은 두 비(妃)의 소상(塑像)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 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아꼈다.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뒷날 하늘에서 빚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차환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희롱했다.”

그 무렵 해가 서산에 지고 달빛이 어둑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 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었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낭자께서는 어려움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시나요?”

여승이 놀라,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관 음께서 말하기를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 하여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

사 씨가 말했다.

④“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가면 혹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⑤“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시다. 낭자께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부축해 언덕을 내려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갔다. 갑자기 한 줄기 순풍이 황릉묘로부터 불어와 순식간에 군산에 도착했다.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칠백 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숲은 뽕뽕하고 솔숲은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조대가, 맹광(맹 씨), 장강, 반첩여 :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로 알려짐.

07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사 씨’는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다.
- ② ‘사 씨’ 일행이 찾아가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이었다.
- ③ ‘사 씨’ 일행은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 ④ ‘사 씨’ 일행은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에 ‘여승’ 일행을 만났다.
- ⑤ ‘사 씨’가 도착한 ‘군산’은 예로부터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0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 ② ㉡: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0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천상계([A])와 지상계([B])라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꿈속’, ‘비몽사몽간’과 같은 반(半)현실적 공간([C])이라는 세 개의 공간적 층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이야기 전개와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 ① [C]에서는 [A]의 뜻에 따라 [B]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사 씨’에게 예고하고 있다.
- ② [C]의 ‘꿈속’은 ‘사 씨’가 [B]에서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와 그녀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 ③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B]에서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④ [B]의 존재인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만나는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그녀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⑤ [B]에서 ‘여승’이 ‘사 씨’를 구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것은 [C]의 ‘비몽사몽간’을 통해 [A]의 뜻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천 씨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 눈 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고 한다.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북풍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출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사립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아버지가 되었을 뻔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수가 없게 됐제. 그래서 끝내는 애 어미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에 그 길로 곧 핏덩일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네!”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의 그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게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 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괴롭고 고통스런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 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 때까지 반생을 지내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하나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나는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어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소맛은 소리 비렁뱅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그 발두렁가에 누워 보던 바다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부터 복더위를 씻어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을 지나가고……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볼태울 것 같은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별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 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 씨가 아직도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비니 소리가 목에

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복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 오라비의 숨씨는 옛날의 제 아버 되는 노인의 숨씨 그대로였소.”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땐 자넨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놓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오.”

“그렇다면 글썸……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던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오.”

“오라비가 자넨 죽이고 싶어 하더니?”

사내의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비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빈 그걸 무슨 헛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헛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오.”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뽑았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내고 싶었던가 말이네.”

“…….”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돌았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니까. 오라빈은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 입네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비니도 족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오.”

“…….”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 이청준, 「소리의 빛」 -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중립적 위치에 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11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천 씨’는 ‘여자’를 찾아온 ‘사내(오라비)’를 보고, 그가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 ② ‘여자’와 ‘사내(오라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 ③ ‘사내(오라비)’가 찾아온 날 밤, ‘여자’는 그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했다.
- ④ ‘여자’는 출생 직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 ⑤ ‘천 씨’는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사내’는 누이와 함께 ‘의붓아버지(노인)’를 따라다니다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예술(가)의 길’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소리’와 ‘헛덩이’는 이와 같은 예술가의 길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 이미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① ‘사내’가 ‘여자’에게서 ‘뜨거운 헛덩이’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의 길이 끝이 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 준 장단의 숨씨가 옛날의 노인의 숨씨 그대로였다라는 것은, ‘사내’가 ‘헛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60. 마루
상돌네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보고 호들갑을 떤다.

상돌네 왔다! 선녀가 하강했나비! 저러니 순천 박 참봉 댁 아들이 반하지 않고 배길 것이여!
옥화 (눈을 흘기며) 누가 그런 집에 시집 간다요.
상돌네 어매- 큰일 나것네-. 그 도련님이 워디가 으째서..... 집안 좋겠다 인물 잘 낫겠다.....
옥화 흥! 그런 집에 갔다가 밤낮 구박은 누가 받고! 술장사 딸이라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남사당꾼 딸이라고.....

따라 나서다가 가슴을 찢린 듯 주춤하는 소향-. 그때 멀리 산사에서 쿵-하고 종소리가 울려온다. 그 소리를 듣자 부리나케 마당으로 내려가는 옥화. 어이없는 듯 쳐다보는 소향-.

S# 61. 옥화네 집 앞
옥화, 버드나무 가지를 매만지며 먼 화개협 골짜기를 바라다본다. 울려오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옥화의 얼굴에 사무치는 그림. 등 뒤에 소향이 다가선다.

소향 또 젊은 중 생각이구나?
옥화 나두 머리 깎구 절이나 같까?
소향 뭐라꼬?
옥화

S# 62. 쌍계사 종루
있는 힘을 다하여 종채를 잡아당겼다가 내미는 법운.

S# 63. 옥화네 집 앞
소향 어휴-, 큰일이다. 허구헌 날 저놈의 종소리만 들음 안절부절 녀이 빠지니....., 네가 정 그래싸은 종소리 안 들리는 면데로 이사라도 가야 할랑가부다.
옥화 걱정 마이소. 우린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구마.
소향 (믿어지지 않는 듯)

S# 64. 쌍계사 종루
법운의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종치기를 다하고 비틀비틀 난간을 붙잡고 가쁜 숨결을 몰아쉬며 산 밑을 굽어본다. 고뇌에 싸인 얼굴. 그때 종루 밑에서 조용히 부르는 소리.

혜초 법운아-.

법운, 후딱 정신이 들며 돌아본다.

S# 65. 절 마당
종루 밑에 혜초 스님이 서 있었다. 법운, 천천히 층계를 내려온다. 혜초 앞에서 합장한다. 지긋이 바라보다가

혜초 종소리에 한이 많구나....., 무슨 생각을 하며 울렸기에 소리가 그리도 애절한고.....
법운 (흠칫하며) 예?
혜초 무서운 업이로다. 인연이란 거미줄 같은 것! 한번 놀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느니라. 진작 끊어버려야지 정이 끊기가 어렵거든 멀리 떠나거라. 여기 있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네가 업원을 감당키 어려울레라.

법운

혜초 나무관세음보살.....

법운도 합장하고 입안에서 중얼거린다. 혜초, 서서히 법당 쪽으로 걸어간다. 선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오뇌에 싸이며 발길을 돌리는 법운.

S# 66. 산길 (밤)
송낙*을 쓰고 손에 단주*를 든 법운이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온다. 멀리 산 밑에서 들려오는 강강술래 소리. 법운, 걸음을 멈춘다.

S# 67. 광장 (추석날 밤)
㉠말 만큼씩 한 삼십여 명 마을 처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아간다. 삼단 같은 머리채에 나부끼는 갑사대기가 그들의 허리 아래서 팔랑거리고 주위에는 마을의 남늬노소가 둘러서서 구경을 하며 다 같이 목청을 뽑아 “가양가양 수월래”를 화답한다. 첫소리를 먹이는 것은 옥화. 옥화의 달덩이 같은 얼굴에 조리를 먹일 때마다 흰 이가 별처럼 반짝인다.

옥화 산아 산아 수영산아.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놀이 좋다 백두산아.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잎이 피면 청산이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꽃이 피면 화산이요.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청산 화산 넘어가면.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우리 부모 보련마는.

저만큼 떨어져 서 있는 버드나무 아래로 법운이 다가온다. ㉡송낙 아래서 그의 두 눈이 화경*처럼 옥화를 쏘아 번득인다. 옥화의 첫 소리가 약간 빨라짐에 따라 처녀의 발맞춤도 빨라진다.

옥화 해가 지고 달떠온다.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하늘에다 베를 놓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구름 잡아 잉어걸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달은 잡아 목 맨들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별을 잡아 무늬놓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버드나무 그늘에서 한걸음 달빛 속으로 나오는 법운. ㉢저도 모르게 구경꾼들 등 뒤로 다가선다. 조리를 먹이며 돌아가던 옥화의 시선이 법운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굴에 함뻑 웃음이 핀다. 그러나 법운의 얼굴은 침울하기만 하다. 옥화, 달 뜬 가슴을 못 이기듯 더욱 다그쳐 조리를 먹이자 처녀들의 발길은 일제히 허공에서 떴다 땅을 구르고 땅을 굴렀다 허공에 뜨면서 핑핑 돌아간다.

옥화 하늘에는 별도 총총. / 일동 강-강-수월래.
옥화 솔밭에는 솔잎도 총총. / 일동 강-강-수월래.
옥화 대밭에는 대가 총총. / 일동 강-강-수월래.

지켜보며 점점 침통해지는 법운. 법운의 눈앞에 옥화의 흰 얼굴이 달덩이처럼 확 떠올라서 스러지면 다른 처녀들의 얼굴이 연달아 획 획 떠올랐다가 지워진다. 일제히 뛰노는 오이씨 같은 버선발들-. 갑사대기도 춤을 추고 그들의 달그림자도 춤을 추고, 하늘의 달무리도 숨 가쁘게 돌아오고-.

그러자 법운의 앞을 막 지나치려 한 옥화의 윤기 흐르는 두 눈이 법운의 오뇌에 싸인 두 눈길과 부딪친다. 옥화, 뭔가 심상치 않은 사태를 직감한 듯 후다닥 얼굴에 구름이 낀다. 보고 있는 법운이 모든 잡념을 뿌리쳐 발길을 돌린다. 다시 한 바퀴 돌아오다가 그것을 본 ㉔옥화가 우뚝 서버리자 손을 잡고 돌고 있던 원의 고리가 무너지며 우르르 무너진다. 아랑곳없이 법운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 옥화. ㉕구경꾼들 속에 끼여 있다가 당황하는 소향.

소향 옥화야- 옥화야.

하고 부르며 뒤따라간다.

*송낙: 예전에 여승이 주로 쓰던, 송라를 우산 모양으로 엮어 만든 모자.

*단주: 54개 이하의 구슬을 꿰어 만든 짧은 염주.

*화경: 햇빛을 비추면 불을 일으키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불록 렌즈'를 이르는 말.

- 최금동·김강운 각색, 「역마」 -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 ②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에 의해 다른 인물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④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대비하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14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돌네'는 '옥화'의 생각과는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 ② '해초'는 종소리를 듣고 '법운'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다.
- ③ '법운'은 '해초'의 조언을 들은 뒤 쌓계사를 나서고 있다.
- ④ '옥화'는 강강술래 소리를 하며 '법운'을 잊으려 하고 있다.
- ⑤ '소향'은 '법운'과의 관계에 대한 '옥화'의 말을 의심하고 있다.

15 <보기 1>을 참고하여 ㉑~㉔을 <보기 2>에 따라 촬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영화에서 카메라가 촬영한 장면에는 인물의 눈을 통해 대상을 바라본 '주관적 시점의 쇼트'와 등장인물의 시선과 무관한 '객관적 시점의 쇼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㉑의 위치에서 촬영한 화면인 ㉓는 객관적 시점의 쇼트가 되며, ㉒의 위치에서 촬영한 화면인 ㉔는 주관적 시점의 쇼트가 된다. 실제 영화에서는 이 두 개의 쇼트를 연결하여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보기 2>

S# 67을 옥화, 법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와 객관적 시점의 쇼트만을 활용하여 촬영한다.

- ① ㉑ : 법운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강술래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려 한다면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② ㉓ : 법운의 눈은 옥화가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하고, 그의 시선으로 본 강강술래 장면은 법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하여 연결할 수 있겠군.
- ③ ㉒ : 옥화의 시점에서 바라본 법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옥화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④ ㉔ : 발길을 돌린 법운은 옥화가 멈추는 장면을 볼 수 없으므로 법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⑤ ㉔ : 법운과 옥화가 모두 소향을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종다리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少年)이었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 가벼운 날개 밑에 머-르리 수평선(水平線)이 층계(層
 階)처럼 낮더라.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단애(斷崖)의 허리에게으른 갈매기 울음
 소리를 비웃었다

오늘 ㉡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
 는도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코밑에 미운 너와 나는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

- 김기림, 「추억(追憶)」 -

(나) 흰 나비가 소매도 건지 않고

㉢ 봄비를 건너간다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그 고요한 날갯짓에는
 보이지 않는 격렬함이 깃들어 있어
 날개를 둘러싼 고운 가루가
 천 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다
 모든 날개는 몸을 태우고 남은 재이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면서도
 걸음이 가볍고 가벼운 저 사람
 슬픔을 물리치는 힘 고요해
 봄비 건너는 나비처럼 고요해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 그는 남몰래 가졌을까
 옷 한 벌, 흰 재로 지어진

- 나희덕, 「재로 지어진 옷」 -

(다) I
 시(詩)를 쓰는,이 아래층에서는 아낙네들이
 계(契)를 모은다.
 목이 마려워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층층대는 아홉 칸.
 열에 하나가 부족한,
 발바닥으로
 지상(地上)에 하강(下降)한다.

II
 열에 하나가 부족한,
 ㉤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疾走)한다.
 달려도 달려도 열에
 하나가 부족한
 그것은
 골인 없는 백열경주(白熱競走).

III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면
 상층(上層)은
 공기가 희박했다.

- 박목월, 「상하(上下)」 -

16 <보기>를 바탕으로 (가) ~ (다)의 주된 대비 양상을 정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대비'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거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어서 시상 전개 방식으로 자주 쓰인다. (가)~(다)에서도 이러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비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 | (가) | (나) | (다) |
|----------|--------|--------|
| ① 시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 ② 시간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 ③ 심상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 ④ 공간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 ⑤ 공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17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시인이 (다)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와 (다)에서 우리는 현실적 어려움과 대면하며 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에 드러난 어려움이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에 해당한다면, (다)에는 이와 더불어 생활인으로서의 고통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와 (다)는 시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다)의 화자가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모습은, '흰 나비'의 '고요한 날개짓'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다)에서 '지상에 하강'하는 화자의 모습은, '그'가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 ③ (다)의 화자가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하고 나면, '흰 나비'와 같이 '몸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 ④ (다)의 화자가 '골인 없는 백열경주'를 하는 모습에서, '슬픔을 물리'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다)의 화자가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간이 일직선상에서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보는 것과는 달리 신화적 시간관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간 인식에 따르면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회귀를 통해 인간은 현재적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 ① '언덕'이라는 동일한 배경은, '너와 나'가 '유년 시절'로 회귀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 ② '또다시 가슴이 등근 소년일 수 없구나'라는 표현에서, '오늘'이라는 현재적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게 된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신화적 시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④ 현재의 시간을 '노을'에 대응시켜 '아침'이었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에서, 인생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알 수 있다.
- ⑤ '꿈 많은 소년'이었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신화적인 인식에서 비롯한 과거로의 회귀에 해당한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 모순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 어순을 도치시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1. ③	2. ⑤	3. ④	4. ②	5. ③
6. ⑤	7. ②	8. ②	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④	14. ①	15. ②
16. ②	17. ③	18. ④		

2014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A)

01 (66%)

[출제의도]

글의 논지 흐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 ③ 관련 있는 개념들을 통한 둘째 핵심 개념 설명
- 1. 핵심 개념들과 함께 중심 화제 제시 : '선이해' 와 '지평 융합'
- 2. 다른 견해와의 대비 통한 첫째 핵심 개념 설명 : '선이해'를 계몽주의 학자들의 견해와 대비해서 설명
- 3. (빈 칸) : '지평 융합'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현재 지평'과 '역사적 지평'의 개념을 설명

→ 따라서 ③ 관련 있는 개념들을 통한 둘째 핵심 개념 설명 선지가 옳습니다.

* 지문 속의 이분개념[a ↔ b] : 계몽주의 학자들 ↔ 가다머

02 (89%)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정답 맞추기]

- ⑤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 발문에서 계몽주의 학자들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계몽주의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문] : 이성적인 이해를 중시했던 계몽주의 학자들은 선입견을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잘못된 생각이라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선입견은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것이다.

→ 계몽주의 학자들은 선입견을 부정하고,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⑤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는 옳은 선지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선입견을 이성의 일부로 인정하였다.
- 계몽주의 학자들은 선입견을 이성적인 이해를 가로막는 잘못된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입견을 이성의 일부로 인정하였다는 선지는 옳지 못합니다.

- ② 개인보다는 집단의 생각을 중시하였다.
- 계몽주의 학자들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선입견을 비이성적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옳지 못한 선지입니다.
- ③ 비이성적인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형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유형입니다. 서술어를 차분히 읽어야 합니다. 계몽주의 학자들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④ 선입견을 통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계몽주의 학자들은 선입견을 통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3 (78%)

[출제의도] 정의하는 개념은 반드시 출제된다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 ④ 민수의 현재 지평은 ㉞, ㉠와 순차적으로 지평 융합하면서 확장되어 간다.
- '가다머'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하기.
- 가다머의 관점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 그가 말하는 현재 지평이란 인식의 주체가 선이해를 바탕으로 형성한 이해로, 인식의 주체 머릿속에 형성된 지식이나 신념 등과 관련이 있다.

[요약] : 반면 역사적 지평이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이해의 산물로, 텍스트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지식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문] : 이해의 과정이란, 서로 다른 두 지평이 만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의 융합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되어 나간다. 따라서 두 지평이 융합된 결과 형성된 지평은 주체가 기존에 가졌던 현재 지평과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이해의 과정으로서 지평 융합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주체가 가진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평이 되고, 이것이 다음 이해의 선이해로 작용하며 또 다른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1. <보기>의 '인간은 본성적으로 약하다는 생각'(㉞)은 인간 본성에 대한 민수의 현재 지평입니다.
2. 이것이 '동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텍스트'(㉠)와 융합하여 '인간은 선악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새로운 지평을 형성합니다.
3. 이는 다시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다룬 텍스트'(㉢)와 융합하여 ㉡와 같이 이해의 폭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 ㉡와 융합하여 새로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다음 이해의 현재 지평으로 작용하여 ㉡와 융합하여 좀 더 확장된 이해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민수의 현재 지평은 ㉞, ㉠와 순차적으로 융합하면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4 (90%)

2012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의도]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② 개념사가 갖는 한계

→ 이 글은, 개념사가 출현하게 된 배경, 개념사의 관점에서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는지, 그리고 개념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지만, 한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답 피하기] 정의하는 개념은 반드시 출제된다

정의와 부연·상술(뒷받침 문장) : 개념사

→ 개념사에서는 사회 역사적 현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층들을 파헤치면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이 과정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떤 함의들이 거기에 투영되었는가, 그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등에 대해 탐구한다.

→ 또한 개념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보다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개념사에서는 **과거의 역사 행위자가 자신이 경험한 ‘현재’를 서술할 때 사용한 개념과 오늘날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역사로 번역하면서 양자가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절차를 밟는다.

→ [개념과 개념사] 결론

이상에서 보듯이 **개념사에서는 개념과 실재를 대조하고 과거와 현재의 개념을 대조함으로써, 그 개념이 대응하는 실재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실재의 이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왜곡하는가를 탐구한다.**

→ 이를 통해 코젤렉은 과거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묘사’를 주장하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을 비판하고, 과거의 역사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재와 현재 역사가가 만든 역사적 실재를 의미 있게 소통시키고자 했다.

① 개념사의 연구 방법

→ 첫 번째 - 개념사 부분에 판단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여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과정에서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③ 개념사의 탐구 대상

→ 개념사의 탐구 대상은 개념과 실재를 대조하고, 과거와 현재의 개념을 대조합니다.

④ 개념사가 출현한 배경

→ 논지 제한(이/그/저) 부분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개념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늘 있어 왔다. 바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출현한 것이 코젤렉의 ‘개념사’이다.

⑤ 개념사에서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

→ 또한 개념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보다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갖으며, 거의 역사 행위자가 자신이 경험한 ‘현재’를 서술할 때 사용한 개념과 오늘날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의 차이를 밝히는 태도로 개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05 (92%)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③

→ ‘동인(動因)’은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의 발달은 산업 사회에서 정보 통신 사회로 이행하는 결정적 동인이 되고 있다.’와 같이 쓰인다. ‘연관성이 먼,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원인(遠因)’이다.

06 (84%)

[출제의도] 정의하는 개념은 반드시 출제된다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⑤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와 ‘의리’와 ‘예’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리’와 ‘예’ 개념을 한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겠군.

→ <보기>는 ‘의리’와 ‘예’와 같은, 조선시대에는 주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였던 개념들이 오늘날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 개념사의 입장에서 ‘의리’와 ‘예’의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개념들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와 논쟁이 벌어져 왔는지 주목하여, 조선 시대의 ‘의리’와 ‘예’의 개념을 오늘날 ‘의리’와 ‘예’의 개념을 의미 있게 소통시키고자 합니다.

→ 그러나 이는 **근대 역사학에서처럼 ‘단 하나의 올바른 묘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축적되어 있는 중층적인 의미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의리’와 ‘예’ 개념을 한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와 오늘날의 ‘의리’와 ‘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려 하겠군.

→ 개념사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해석의 차이에 주목하므로 ‘의리’와 ‘예’의 개념이 조선 시대와 오늘날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 ②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의 논쟁에 사용된 '의리'와 '예'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연구하려 하겠군.
- 개념사의 관점에서 개념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사용된 '의리'와 '예'의 개념 역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의 논쟁에 사용된 '의리'와 '예'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연구하려 할 것입니다.
- ③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의리'와 '예'의 개념에는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루고 있다고 여기겠군.
- 개념사에 따르면, '역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룹니다. '의리'와 '예'의 개념 역시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그것을 기록, 해석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의 층을 쌓아 오게 되므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의리'와 '예'의 개념에는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루고 있다고 여긴다는 선지는 옳습니다.
- ④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에 사용된 '의리'와 '예'의 개념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실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군.
- 코젤렉에 따르면 '개념은 실재의 지표이자 요소'입니다. 이 말은 '의리'와 '예'와 같은 개념들이 실재를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정치 사회적 사건과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사용된 '의리'와 '예'의 개념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실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는 선지는 옳습니다.

07 (7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 ㄱ.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한다.
- ㄴ. 개념은 역사 속의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 개념사에서는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역사가가 무엇을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지에 주목합니다. 이 글은 개념사가 개념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에 대해 '개념은 실재의 지표이자 요소'라는 코젤렉의 말을 들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 ㄴ. 개념은 역사적 실재 속에서 사회가 추구했던 목표를 지향합니다.
- ㄷ. 개념사는 역사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보다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08 (86%)

2011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 ② 포화지방은 혈관 벽의 콜레스테롤 입자들을 녹인다.
- 포화지방의 기능에 관하여 묻는 내용으로 4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저밀도 단백질과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부에 쌓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는 틀린 진술입니다.(녹이는 것은 불포화지방이다)

[오답 피하기]

(가)문단 통해 내용을 환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라)문단이 포화지방에 관련되었고, (다)-(마)문단이 불포화지방에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다.

- ①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성지방은 1문단에서만 언급되어져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문단에 의하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서술되어져 있다. 1문단에 의하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 ③ 포화지방은 체내의 장기 주변에서 장기를 보호한다.
- 포화지방의 기능으로 4문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포화지방은 장기 주변에 쌓여 장기를 보호한다고 서술되었습니다.
- ④ 불포화지방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돕는다.
- 불포화지방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5문단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문] 지방은 세포막의 투과율을 높여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을 원활하게 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입니다.
- ⑤ 중성지방은 함유한 지방산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뉜다.
- 중성지방에 관한 언급은 1문단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산속의 탄소 사슬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09 (85%)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⑤ D의 지방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은 탄소끼리의 단일 결합 때문이다.

→ D의 지방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은 탄소끼리의 이중 결합으로 인해 구부러짐 현상이 발생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단일 결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A의 탄소에 결합한 수소의 수가 C의 탄소에 결합한 것보다 더 많다.

→ A의 탄소에 결합한 수소의 수는 4개고 C에 탄소에 결합한 수소의 수는 2개이므로 주어진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입니다.

② B 구조의 지방산을 가진 지방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은 분자 간 인력 때문이다.

→ 관련된 내용은 2문단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분자 간 인력이 높아 인력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열에너지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는점이 높아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③ B 구조의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은 D 구조의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보다 녹는점이 높다.

→ D는 불포화지방산으로 3문단에 따르면 녹는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로 주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B는 포화지방산으로 2문단에 따르면 녹는점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로 주로 존재합니다.

④ C의 결합으로 인해 D의 분자 간 인력이 낮아진다.

→ 3문단에 따르면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로 인하여 지방산 분자들이 멀게 분포하게 되어 인력이 낮아집니다

10 (88%)

[출제의도]

내용에 따른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맞추기]

② (라) : 코코넛 유로 튀긴 음식을 즐겨 먹으면 혈관계 질환이 적게 발생할 거야.

→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 팜유, 코코넛 유, 버터 등에서 보이며,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지만 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라) :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 팜유, 코코넛 유, 버터 등에서 보이며,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지만 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③ (마) : 생선을 많이 먹으면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한 것으로 적절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④ (마) : 들깨에서 나온 기름을 많이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질 거야.

→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한 것으로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⑤ (마) : 올리브기름을 이용한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의 쇠퇴를 늦출 수 있을 거야.

→ 올리브기름은 불포화지방으로, 인지 기능의 쇠퇴를 늦추는 기능을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11 (87%)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정답 맞추기]

③ 두부 : 단백질

→ '㉓ 버터'는 '㉔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㉓ : ㉔은 '㉔'을 함유한 '㉓'라는 의미 관계에 있는 단어쌍이다.

'두부 : 단백질'은 '단백질'을 함유한 '두부'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맵시 : 자태

→ 둘은 유의 관계입니다.

② 뿌리 : 나무

→ 부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④ 옥수수 : 강냉이

→ 동의 관계입니다.

⑤ 생성 : 소멸

→ 둘은 반의관계입니다.

12 (91%)

2012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의도]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④ 에니그마는 전기 암호 장치와 같이 회로 구조만 알아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 에니그마는 전기 암호 장치처럼, 회로 구조가 파악되면 쉽게 암호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회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는 암호 장치입니다. 판단근거는 아래 [문제점 → 해결 방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전기 암호 장치는 회로 구조가 곧 평문 철자와 암호 철자의 대응 규칙이지만, 에니그마는 원통의 회전에 따라 평문 철자와 암호 철자의 대응 규칙이 계속 바뀌므로 원통 속의 회로 구조만으로는 암호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전기 암호 장치는 회로 구조가 파악되면 쉽게 암호가 노출될 수 있고, 그런 경우 다시 회로 구조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戰時)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해결방안]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회전하는 원통 속에 전기 회로를 넣은 '에니그마'가 개발되었다. [새로운 화제(에니그마) 제시]

[오답 피하기]

① 전기 암호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니그마를 개발했다.

→ 전기 암호 장치는 상황에 따라 회로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회전하는 원통 속에 회로 구조를 넣은 에니그마를 개발했습니다. 판단근거는 위의 [문제점 → 해결방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는 전기 회로를 통해 환자 방식을 구현했다.

→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는 회로 구조를 통해 평문 철자를 암호 철자로 교환하는 환자 방식을 구현한 것입니다.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의 스위치는 평문 철자, 램프는 암호 철자를 나타낸다.

→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는 스위치 쪽에서 평문 철자를 입력하고 램프에서 암호 철자가 나옵니다.

[판단근거]는 지문 속의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림 1]에서 스위치 a, b, c, d와 연결된 램프 A, B, C, D로 구성된 이 장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키보드에서 평문 철자를 입력했을 때 불이 켜지는 램프가 암호 철자를 나타낸다.

13 (76%)

[출제의도] 정의하는 개념은 반드시 출제된다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④ '한글 입력 모드에서 이 영문을 입력하고, 그걸 거꾸로 읽어'는 알고리즘에 해당하는군.

→ <보기>에서 영희가 철수에게 보낸 'gofkdtksjif'는 철수의 답신 내용을 통해 '널 사랑해'라는 평문을 암호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한글 입력 모드에서 이 영문을 입력하고, 그걸 거꾸로 읽으라'는 영희의 말은 이 암호를 해독하는 '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의를 통해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암호화의 규칙은 '알고리즘(algorithm)' 암호문을 평문으로 푸는 해독의 규칙은 '키(key)'.

[오답 피하기]

① '널 사랑해'는 영희가 전하고 싶은 평문이군

→ '널 사랑해'는 영희가 전하고 싶은 평문입니다.

② '널 사랑해'를 '해랑사널'로 바꾼 것은 전치 방식이군.

→ 영희는 '널 사랑해'를 전치 방식을 통해 '해랑사널'로 바꾸고 다시 영문 입력 모드로 입력하여 암호문 'gofkdtksjif'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알파벳 문자로 환자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③ '해랑사널'을 'gofkdtksjif'로 바꾼 것은 환자 방식이군.

→ 영희는 '널 사랑해'를 전치 방식을 통해 '해랑사널'로 바꾸고, 다시 영문 입력 모드로 입력하여 암호문 'gofkdtksjif'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알파벳 문자로 환자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⑤ 철수가 보낸 '해랑사도나'는 전치 방식으로 보낸 것이군.

→ 철수는 영희가 준 '키'를 통해 암호를 풀었고, 영희의 방식으로 자신도 '해랑사도나'라는 암호를 만들어 영희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나도 사랑해'라는 평문을 전치 방식으로 만든 암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 (61%)

[출제의도]

글에서 설명한 기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

[정답 맞추기]

그림을 따라가며 상황을 이해합니다.

- 1. [그림 2]의 에니그마에 첫 번째 암호 철자 'b'를 입력하면 원통이 회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암호 철자 'A'를 얻게 됩니다. (b-2-1-A).
- 2. 두 번째 암호 철자 'c'를 입력하면 원통이 반시계 방향으로 1/4만큼 회전했으므로 암호 철자 'B'가 나오게 됩니다. (c-2-1-B).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암호철자는 AB입니다.

15 (78%)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② 볼탕스키 작품 세계의 특징

- 오브제로서의 아마추어 사진 활용을 중심으로
- 지문 내용을 잘 요약한 선지입니다. 오브제로서의 아마추어 사진 활용을 중심으로-에서 이데오그램, 소시오그램과 양면성 모두 포괄됩니다. 모더니즘은 개념미술가를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볼탕스키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혹여나 그러한 않겠지만 모더니즘 예술가의 내용이 왜 없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개념미술의 전개 과정

- 볼탕스키 사진이 가지는 양면성을 중심으로
- 개념미술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기에 볼탕스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훌륭한 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제도 볼탕스키의 양면성만 짚기에는 소시오그램과 이데오그램 내용이 빠져있어 잘 요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표제는 거시적으로 모든 내용을 포괄해야하며, 부제는 미시적으로 주된 핵심내용을 포괄해야 합니다.

③ 볼탕스키의 오브제 활용 기법

- 가족사진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 볼탕스키의 오브제 활용 기법이 등장한 것은 양면성 뒤에 나오는 일부 사례들밖에 없습니다. 활용 기법보다 아마추어 사진 차용이 하는 역할과 감상자에게 주는 느낌 정도가 더 어울리는 설명입니다. 부제로 가족사진 활용 방법이 나와 있어, 이는 괜찮은 설명이나 양면성을 잘 담지 못한 한계가 있긴 합니다.

④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의 관계

- 볼탕스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 둘 사이의 관계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⑤ 볼탕스키의 작품이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

- 사진의 문화적 코드를 읽는 방법을 중심으로
- 표제의 내용은 5문단 끝에 잠깐 나온 수준입니다. 이를 표제로 설정하기에는 다른 개념들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16 (68%)

[출제의도]

지문에서 정의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 ② 감상자가 예술의 순수성을 잃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을 재배열했다고 할 수 있겠군.
- 예술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한 것은 개념미술가인 볼탕스키가 아니라 모더니즘 예술가들입니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을 재배열한 것은 볼탕스키의 특징이 맞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감상자가 작품 속 사진을 '진짜'처럼 여기게 하기 위해 기존의 사진을 재촬영했다고 할 수 있겠군.
- 보기 해설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③ 감상자가 제시된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 작품의 실제 내용에서 벗어난 제목을 붙였다고 할 수 있겠군.
→ 4문단에 근거가 있습니다. 불탕스키의 다양한 시도 세 번째 사례입니다

④ 감상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감정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가족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군.
→ '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감정을 재확인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아마추어 사진'의 소시오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⑤ 감상자가 고착화된 문화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로 정면을 응시하는 전형적인 자세의 사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군.
→ '정면을 응시하는 전형적인 자세'는 이데오그램의 사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3문단 해설에서 설명했듯이 첫 문장은 이데오그램에 대한 서술이고 선지의 내용 또한 이와 일치합니다.

17 (72%)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와 비교하여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보기- 뒤상과 불탕스키의 공통점은 지문 1문단과 보기 처음부터 나온다. 뒤상은 관습적인 미의 기준과 예술 개념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켰고, 불탕스키 또한 예술적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얼마든지 이미지 차용을 허용했다. 그리고 뒤상이 산업 생산물을 전시 공간에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되도록 하듯이, 불탕스키 또한 기성품을 오브제로 활용하면서 예술 작품이 되게 하였다.

[정답 맞추기]

③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면서 예술 작품이 된다.
→ 1문단에서 아마추어 사진이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했다고 서술했고, 보기에서는 예술가가 선택하여 작품화한 산업 생산물이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진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답습한다.
→ 답습하다는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두 예술가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② 일상 공간 속에서도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
→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아마추어 사진을 작가가 작품에 오브제로 사용하여 전시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했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레디메이드'는 '산업 생산물이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것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또한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④ 원본의 재가공이나 재구성을 통해 예술 작품이 된다.
→ 불탕스키는 원본을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였지만, 뒤상은 단순히 옮겨놓아 예술작품이 되게 하였으므로 틀린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⑤ 대중이 예술성을 인정해 예술가가 선택한 소재이다.
→ 대중이 예술성을 인정한 여부는 지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18 (7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추기]

④ ㉔: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여.
→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여'는 '조정(調整)하다'입니다. 이 지문에서 '조합하다'의 의미는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짜다'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㉓: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씬.
② ㉖: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③ ㉑: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
⑤ ㉕: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고.

1. ④	2. ①	3. ⑤	4. ②	5. ④
6. ⑤	7. ④	8. ①	9. ③	10. ③
11. ①	12. ④	13. ③	14. ④	15. ④
16. ①	17. ⑤	18. ③	19. ⑤	

01 (85%) 2012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맞추기]

- ④ 자연물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 (가)의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에서 '노랑나비'와 '이끼'라는 대조적인 성격의 자연물을 통해 현재의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자연물을 통해 시적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에서는 봄이 오는 숲이라는 시적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에 잠기며 지난날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려는 화자의 내면이 '이 세상에 내리는 솔이파리들' '저만큼 지는 상수리나무 묵은 잎' 등의 자연물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에서 '새 잎사귀'라는 자연물을 통해 봄 산에서 느끼는 화자의 내일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자연물을 통해 시적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에서 '내 이미 백구 잇고 백구도 나를 잊네'는 화자와 갈매기가 각기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나를 잊은 백구'라는 자연물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어 몰아일체의 경지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02 (71%)

[정답 맞추기]

- ① (가)는 (나)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가)에서는 어순을 도치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 (나)에서는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숲속에서'에서 어순의 도치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② (가)는 (나)와 달리,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가)의 첫연과 마지막연이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사람의 인적이 끊긴 혹은 사람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퇴락한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드러내어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나)에서는 처음과 끝을 대응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시구를 반복 변주하여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나)의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 두리'에서 '무엇을 내 -에'라는 시구가 반복 변주됨으로써 미련 없이 지난날의 그림자들을 버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에서 '눈 뜨리'가 살짝 변주되어 '눈을 뜨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반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나무에 새싹이 돋을 것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 ④ (가)와 (나)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가)의 '연기는 돛대처럼 날려 항구에 들고'에서 '연기'를 '돛대'에 직접 비유함으로써 연기가 항구 쪽으로 흐르는 장면을 시각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연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는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에서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이라는 표현의 '처럼'을 통해 '푸르른 눈'이 '새 잎사귀'에 직접적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비유는 비유가 없을 때에 비해 '푸르른 눈'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 ⑤ (가)와 (나)는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가)의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물에 들리라'에서 '들리라'의 '-라' 1연 2행의 '푸르리라'의 '-라' 4연 1행의 '못살이'의 '-라'를 통해 이 시가 특정 종결 어미 ('-라')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에서는 '-리'라는 종결 어미가 2행의 '있으리' 6행의 '좋으리' 그리고 11행의 '잡아두리'에서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3 (74%)

[정답 맞추기]

- ⑤ (나)의 '솔숲'과 (다)의 '강'은 화자의 구체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나)의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를 통해 화자가 실제로 숲 속을 거닐며 여러 자연물들을 보고 이러한 구체적 체험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수는 화자의 구체적 체험이 이뤄지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의 '빈 강에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맛이'라'를 통해 화자가 낚시를 하는 공간이 다름 아닌 빈 강의 낚시터이므로 '빈 강'의 '강'에 대해 화자의 구체적 체험이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노랑나비'와 (나)의 '박새'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가)의 '노랑나비도 오랴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에서 노랑나비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 시킵니다. 그러나 '노랑나비도 오랴는'에서 보듯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노랑나비는 더 이상 오지 않을 뿐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

→ (나)의 '박새들은 술가지에서 술가지로 가벼이 내리네'에서 소나무 가지 사이를 가볍게 건너다니는 새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햇살'과 연결되어 '박새'는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가)의 '눈보라'와 (나)의 '찬 서리'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 (가)의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잡으면 못살아라'에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바람과 눈보라에 대해 화자는 모순되게도 **그려한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자는 고난과 시련에 너무 익숙해졌기에 혹은 고난과 시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익숙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일지라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보라'에 대해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나)의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에서 봄이 되어 싹을 틔우려는 나무에게 있어서 '찬 서리'는 지난겨울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화자에게 있어서도 근심과 고단함으로 힘들어 하던 지난날을 의미하므로 '찬 서리'에 대해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가)의 '달'과 (다)의 '달'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매개가 된다.

→ (가)의 '달은 강을 따르고'에서 달은 밤길을 걷고 있는 화자를 둘러싼 배경의 역할을 할 뿐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의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을 보면 **고요한 산속 못물에 밝은 달이 비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은 산속의 혹은 자연의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 뿐**

달이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매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나)의 '술이파리들'과 (다)의 '붉은 잎'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다.

→ (나)의 '술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에서 '이 세상에 내리는 술이파리들'의 모습과 무언가를 버릴 수 있으리라 가만히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은 하강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이파리들'에 대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다)의 '붉은 잎 산에 가득'에서 붉은 잎은 단풍이 곱게 든 가을의 정취를 나타내는 배경의 역할을 하는 까닭에 붉은 잎에 대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04 (81%)

[정답 맞추기]

② '검은 꿈'이 '슬픔'과 '자랑'을 집어삼킨다는 표현에는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에서 '검은 꿈'은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고향 사람들의 체념과 좌절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삶에 대한 자긍심도 모두 잃어버린 고향사람들의 우울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은 꿈'이 '슬픔'과 '자랑'을 집어삼킨다는 표현에는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이끼'만 푸를 '무덤'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고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

→ '노랑나비도 오랴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를 통해 쓸쓸하고 절망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고향을 떠올리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매운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그림자'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어.

→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에서 고된 현실을 잊기 위해 매운 술을 마신 후 돌아가는 화자의 발걸음을 화자의 그림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매운 술'은 현실의 고통이 너무도 크기에 이를 잊고자 화자가 마신 술일 것이며 '돌아가는 그림자'는 술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현실의 무게에 지친 화자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 '매운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그림자'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④ ‘숨 막힐 마음속’에는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던 시인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 이 시의 속 화자의 처지는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는 시인 자신의 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유랑의 삶은 안정된 공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으로 언제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할 것이고, 따라서 ‘숨 막힐 마음속’이라는 구절은 끊임없이 떠돌며 걸돌 수 밖에 없는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숨 막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⑤ ‘강맘’을 ‘차디찬’으로 수식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어.

→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맘에 들리라’에서 강은 끝없이 흐른다는 속성으로 인해 관습적으로 삶의 흐름 혹은 역사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갑다는 성질은 가혹하고 냉혹한 어떤 것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강에 대한 수식어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강이 아니라 ‘강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본다면 차디찬 강이라는 의미일 것이므로 이 해설에서는 ‘강’에 대한 수식어라고 표현합니다.

→ 시인이 ‘차디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시인이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가혹하고 냉혹한 현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판단은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 주목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강맘’을 ‘차디찬’으로 수식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05 (76%)

[정답 맞추기]

④ ‘내 마음 가장자리’, ‘술숯 끝으로’에는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이 부각되어 있다

→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에서 ‘내 마음 가장자리’는 화자가 버리고 싶은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장자리’에 대해서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이 부각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시 어디에도 화자가 소외된 삶을 살기에 외로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술숯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에서 ‘술숯 끝’은 ‘해맑은 햇살’이 비치는 밝고 환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므로 ‘술숯 끝으로’에 대해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이 부각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내리고’, ‘지네’ 등에 드러난 하강 이미지는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는 지난 삶에서 비롯된 근심과 고단함을 이제는 가볍게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3행의 ‘이 세상에 내리는 솔이파리’, 4행의 ‘저만큼 지는 목은 잎’ 등에서 드러나는 하강 이미지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② ‘목은 잎’은 화자가 지나온 삶을, ‘새 잎사귀’는 화자가 기대하는 삶을 함축한다.

→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에서 나무의 ‘새 잎사귀’는 목은 잎이 지고 난 자리에서 새롭게 돋은 잎입니다. 따라서 나무의 목은 잎을 보고 지난날을 내려놓으려는 화자에게 ‘새 잎사귀’는 화자에게 있어서 화자가 새롭게 기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세상’, ‘이 고요한 술숯’ 등에서처럼 시적 공간을 한정하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공간이 지닌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술숯에서’에서 아무 지시어가 없는 ‘고요한 술숯’이 아닌 시적 공간을 한정하는 지시어인 ‘이’를 사용하여 ‘이 고요한 술숯’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한정하지 않는 경우 독자의 주의를 분산될 수 있지만 이처럼 지시어를 통해 공간을 한정할 경우 독자의 주의를 지시된 이 공간에 집중적으로 모아질 수 있으므로 ‘이 고요한 술숯’에 대해 시적 공간을 한정하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공간이 주는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⑤ ‘봄산’ → ‘봄이 오는 이 숲’ → ‘봄이 오는 이 술숯’으로 시상을 구체화하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1행의 ‘봄산’이 5행의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이라는 부분에서는 ‘봄이 오는 이 숲’으로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행에서는 ‘봄이 오는 이 술숯’으로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봄산에서는 버릴 수 있으리’,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봄이 오는 이 술숯에서는 손에 쥐지도 말고 마음에 잡아두지도 않으리’ 등의 시의 내용을 통해 시상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과거에서 비롯된 슬픔이나 욕망에서 벗어나는 삶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6 (84%)

[정답 맞추기]

⑤ ㉔ : 세상의 청탁을 구분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 ‘㉔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淸濁)을 모르래라’에서 화자는 맑음과 탁함을 즉 청탁을 구분하여 탁한 속세를 멀리하고

많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 대해서 세상의 청탁을 구분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 : 혼탁한 세상에서 멀어져 자연에 친화된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 둘이 서로 있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를 통해 백구도 화자도 서로의 경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탁한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 속에서 하늘의 백구를 보며 자연에 대해 친화적인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 : 은일의 공간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 가랑비 낚시터에 낚시재 제 맛이'에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깊은 자연 속에서 고요히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 : 화자와는 달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 (3) : '㉢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은 자연과 하나 되어 풍류를 즐기는 화자와는 달리, 이익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 ④ ㉣ : 속세의 명리를 중시하지 않는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 (4) : '㉣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 나서 즐겨보세'에서 '공명'을 '해진 신'에 비유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속세의 명성이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07 (70%)

2016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맞추기]

- ④ '사 씨' 일행은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에 '여승' 일행을 만났다.
 - < 지 문 >
 -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차환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희롱했다."

그 무렵 해가 서산에 지고 달빛이 어둑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 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남자께서는 어려움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 풀 이 >

-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라는 말에서
 1. 두 사람(여승 일행)이 묘당 안으로 들어왔다는 정보와
 2. 사 씨 일행은 묘당안에 있었다라는 정보가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 정보들을 이용해 다시 생각해 보면 사 씨 일행은 정처 없이 방황한 것이 아닌 묘당 안에 있다가 여승 일행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4번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사 씨'는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다.
 - < 지 문 >
 - 사 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유모와 차환은 사 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량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 < 풀 이 >
 - 이 부분에서 사 씨가 꿈에서 마셨던 차의 향기가 입에 남아있고 낭량의 대화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므로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꿈의 일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사 씨' 일행이 찾아가던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이었다.
 - < 지 문 >
 -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현판에 '황릉묘'라 써 있으니, 정말로 아황과 여영의 묘당이였다.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빛은 두 비(妃)의 소상(塑像)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 이 부분에서 서술자는 황릉묘를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하다'라 서술했다. 이는 황릉묘를 초라하고 황량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2번은 옳다 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은 정답이 아니다.
- ③ '사 씨' 일행은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 지 문 >

사 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아꼈다.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뒷날 하늘에서 뵈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차환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희롱했다.”

< 풀 이 >

→ 이 부분에서 사씨는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고 먹은 후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사 씨가 의지할 곳, 즉 아무데도 기댈 형편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 씨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이 맞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사 씨’가 도착한 ‘군산’은 예로부터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 지 문 >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칠백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숲은 뻗뻗하고 솔숲은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 풀 이 >

→ 배경모사로 군산은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라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08 (75%)

[정답 맞추기]

- ① ㉠ :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 ㉠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 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석 옆자리에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 ㉠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 씨가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과거와 현재 상황의 대조가 아닌 현재의 상황을 부각하면서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② ㉠ :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 ㉠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 ‘첩에게는 ~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고(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설의법))을 드러내고 있으니 2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 :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소설에 나와있는 여러 여인들에게 사 씨는 ‘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라고 싶습니다. 양반가 여인이 심부름을 할 정도로 모시고 싶어했다는 것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고 그만큼 상대방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④ ㉠ :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 ㉠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가면 혹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와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 씨는 감사와 혹이라도 폐가 될까 하는 마음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⑤ ㉠ :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 낭랑께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보살의 명까지 받았 습니다.’라는 스님의 말에서 자신의 배려에 당위성을 주고 있고 ‘낭랑께서는 염려치 마십시오.’라는 말을 통해 사 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09 (80%)

[정답 맞추기]

③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B]에서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

사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혼백이 어디라도 다녀오셨나요?”

사 씨가 이어 꿈속에서 낭랑을 만나 서로 문답한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서 저 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오게.”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한편에 '황릉묘'라 써 있으니, 정말로 야황과 여영의 묘당이였다.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빚은 두 비(妃)의 소상(塑像)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 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아꼈다.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뒷날 하늘에서 뵈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 사 씨가 꿈에서 깬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장면은 지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3번을 옳게 고치려면 꿈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상계에서 사 씨가 의탁할 곳을 마련해 주었다('남해도인과 깊은 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군산으로 여승 일행과 같이 가는 장면)라고 고쳐야합니다. 따라서 3번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C]에서는 [A]의 뜻에 따라 [B]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사 씨'에게 예고하고 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 관음께서 말하기를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 하여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남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

→ 여승 일행이 비몽사몽간에 부처의 명을 받아 사 씨가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한다'는 것을 듣고 황릉묘 근처의 묘당으로 갔습니다. 여승 일행은 사 씨 일행에게 말했으므로 1번은 옳다 할 수 있으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② [C]의 '꿈속'은 '사 씨'가 [B]에서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와 그녀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낭랑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

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낭랑이 꿈 속에서 사 씨가 어질기로 유명했던 여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사 씨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 사 씨에게 선을 행하라고(사 씨의 삶의 지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B]의 존재인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만나는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그녀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지을 수 있다.

때로는 답이 지문뿐만 아니라 주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장강, 반첩여등의 인물은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인들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 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

라 하였으므로 사 씨가 어질고 착한 여인들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4번은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⑤ [B]에서 '여승'이 '사 씨'를 구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것은 [C]의 '비몽사몽간'을 통해 [A]의 뜻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 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남자께서는 어려움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시나요?”

여승이 놀라,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 관음께서 말하기를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 하여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남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

비몽사몽간 부처가 여승 일행에게 황릉묘에서 사 씨를 구하라 했고 여승 일행이 사 씨를 구하려 황릉묘로 갔으므로 사 씨를 구하기 위해 천상계의 뜻이 작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옳다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10 (80%)

2016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맞추기]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 중략 이전의 사내는 과거 자신(소년)의 과거 회상을 하면서 눈먼 소녀에게 자신의 사연을 들려줍니다.(대화 서술 부분)
 중략 이후의 소녀는 천 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오빠(사내)와 노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따라서 한 인물(소녀, 사내)이 다른 인물(소녀, 천 씨)에게 과거 사연을 들려줬으므로 3번 선지는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한 인물의 내적 독백/인물 사이의 갈등을 전달
 → 선택지를 이렇게 끊어 보시면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한 인물의 내적 독백
 주인 천 씨, 사내, 소녀 모두 내적 독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없다. 따라서 1번은 오답.
 → 인물 사이의 갈등 전달

< 지 문 >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오라비가 싫은 것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버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 풀 이 >

→ 이 장면에서, 눈 먼 소녀는 오빠는 노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노인에게 살기를 품고 있고 노인은 그것을 알고 오빠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계속 창을 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오빠와 노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갈등). 따라서 눈 먼 소녀(여동생)은 인물 간 갈등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내적 독백이 아닌 인물과 대화를 하면서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위 소설은 중략 이전 사내의 과거 회상과 중략 이후 현재의 교차적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병렬적으로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④ 서술자가 중립적 위치에 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하고 있다.

→ 중략 이전 중략 이후 모두 노인과 사내와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지 문 >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사립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중략)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 풀 이 >

→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라는 서술을 통해,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로서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서술자는 중립적 위치에 서있기 보다는 사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중립적 위치에 서있다고 볼 수 없고 중략 이전과 중략 이후의 내용을 서술자가 대조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4번은 오답입니다.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는 것은 현재 이 소설에 나오는 사건(사내와 노인간 갈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설에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직접 다양한 입장에서 서술한 부분은 없으며 중략 이전과 이후 모두 서술자는 대화의 외재된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며 사건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는 부분은 지문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오답입니다.

11 (70%)

[정답 맞추기]

① ‘천 씨’는 ‘여자’를 찾아온 ‘사내(오라비)’를 보고, 그가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 중략 이후의 내용에서

< 지 문 >

(중략)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 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 씨가 아직도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 풀 이 >

→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에서 주인 천 씨는 ‘사내’가 소녀의 오라비임을 알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 대화 속에서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는가하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여기서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는 명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알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② ‘여자’와 ‘사내(오라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 중략 이후의 내용에서

< 지 문 >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뻐 자넬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놀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오.”

“그렇다면 글썄……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

< 풀 이 >

→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에서 오라비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않고 주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 ‘사내(오라비)’가 찾아온 날 밤, ‘여자’는 그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했다.

→ 중략 이후의 내용에서

< 지 문 >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 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복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오라비의 솜씨는 옛날의 제 아버 되는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소.”

< 풀 이 >

→ 천 씨의 말과 소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젯밤오라비가 찾아온 날 밤) 손님(오라비)가 복채를 쥐고 장단을 칠 때 소녀는 옆에서 소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여자’는 출생 직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 소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발췌하면

< 지 문 >

.....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은 듯한 길고도 무서운 북풍 끝에 흙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 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헛덩이 쪽이었다.

(중략)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빈 그걸 무슨 헛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헛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오.”

< 풀 이 >

→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년(현재 사내)의 아버지는 소년(현재 사내)과 핏덩이를 데리고 구걸을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은 아버지의 소리에서 뜨거운 헛덩이를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소녀는 과거를 말하던 중 오빠가 노인의 소리에 괴로움을 느낀 것은 아버지에게 느꼈던 살기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소녀는 소년의 아버지와 소년과 같이 다녔던 ‘핏덩이’ 같은 ‘갓난애’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핏덩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으므로 4번은 옳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⑤ ‘천 씨’는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 종략 이후 천 씨의 말을 모아보면

< 지 문 >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 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때 자넬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그렇다면 글썸……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

“오라비가 자넬 죽이고 싶어 하다니?”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뽑았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내고 싶었던가 말이네.”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들었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 풀 이 >

→ 이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천 씨는 소녀에게 계속 노인과의 오빠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녀가 말하도록 계속 물어보고 있고 천 씨의 발언 이후 소녀는 이에 따라서 질문에 응답해주고 있다. 따라서 5번은 옳으므로 5번은 정답이 아니다.

12 (70%)

[보기 해설]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도중에 시련과 고통이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다. 소설에서 ‘사내’는 노인의 소리에 헛덩이가 느껴져 절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지만 ‘사내’는 그 소리를 찾기 위해 전국을 방황한다. 이를 보기와 연관시키면 ‘소리’(예술)를 찾는 길에 ‘헛덩이’(고통과 시련)를 느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헛덩이를 고통과 시련으로 소리를 예술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① ‘사내’가 ‘여자’에게서 ‘뜨거운 헛덩이’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의 길이 끝이 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위 선지는 소설의 중심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내는 괴로움(헛덩이)을 느끼는데도 예술(소리)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의해 예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인이 소리로 상징된다고 했으니 위의 보기 해설을 이용하면 노인은 사내에게 있어 ‘예술’이라 생각할 수 있다, 사내는 살기(괴로움과 시련에 의한 포기의식)를 품었지만 해치지 못한 것은 결국 사내는 끊임없이 예술을 추구했기 때문이다.(사내는 소리를 찾아 떠난다.)따라서, 사내는 예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2번은 옳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③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사내의 소리에 고통스러움이 담겨있는 것은 사내가 예술을 버리지 않고 추구하는 동안 얻게 되는 고통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 준 장단의 솜씨가 옛날의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사내’가 ‘헛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보기 해설에 따르면 헛덩이는 예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4번 선지는 헛덩이를 소리의 절대적 경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통은 예술의 절대적 경지와 동치라 할 수 없습니다(고통은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대적 경지는 결과이니까요).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⑤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소설 본문 중

< 지 문 >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디까. 오라버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는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입네다.”

< 풀 이 >

→ 이 부분에서 오라비는 노인의 소리(예술)에 헛덩이(괴로움)를 느끼고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 이후 소리를 찾아 해맨 이유는 사내는 소리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결국 소리를 없애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내는 예술에 고통을 느꼈지만 예술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이 이유는 보기의 해설에서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즉 예술가의 길을 자신의 운명(숙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번은 옳다 할 수 있고 정답이 아닙니다.

13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맞추기]

③ 특정 인물에 의해 다른 인물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본 답안의 근거도 S#67에서 나옵니다.
 → 저만큼 떨어져 서 있는 버드나무 아래로 법운이 다가온다. 송낙 아래서 그의 두 눈이 화경처럼 옥화를 쏘아 번뜩인다. 옥화의 첫소리가 약간 빨라짐에 따라 처녀의 발맞춤도 빨라진다.
 → 옥화가 법운을 보자마자 첫소리가 빨라지고 발맞춤도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법운)에 의해 다른 인물(옥화)의 행동 변화(빨라짐)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3번은 옳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 우선 지문 내에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적 긴장감의 완화여부의 관계없이 1번은 틀리므로 1번은 정답 선지가 아닙니다.

Q) 그렇지만 만약 S#67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다양한 소리라고 활용한다고 하면?

A) 우선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다양한 소리라고 인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양한 소리라고 가정한다면,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키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다시 보면

< 지 문 >

저만큼 떨어져 서 있는 버드나무 아래로 법운이 다가온다. 송낙 아래서 그의 두 눈이 화경처럼 옥화를 쏘아 번뜩인다. 옥화의 첫소리가 약간 빨라짐에 따라 처녀의 발맞춤도 빨라진다.

.....

그러자 법운의 앞을 막 지나치려 한 옥화의 윤기 흐르는 두 눈이 법운의 오뇌에 싸인 두 눈길과 부딪친다. 옥화, 뭔가 심상치 않은 사태를 직감한 듯 후다닥 얼굴에 구름이 낀다. 보고 있는 법운이 모든 잡념을 뿌리쳐 발길을 돌린다. 다시 한 바퀴 돌아오다가 그것을 본 옥화가 우뚝 서버리자 손을 잡고 돌고 있던 원의 고리가 무너지며 우르르 무너진다. 아랑곳없이 법운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 옥화. 구경꾼들 속에 끼여 있다가 당황하는 소향.

< 풀 이 >

→ 옥화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후다닥 얼굴에 구름이 낀다는 말로 보아 확실히 긴장감을 완화 시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립니다.

②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씬은 S#67(법운이 새로 등장)입니다. 지문 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장면은 법운과 옥화는 소위 '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S#67의 말미를 보면

< 지 문 >

그러자 법운의 앞을 막 지나치려 한 옥화의 윤기 흐르는 두 눈이 법운의 오뇌에 싸인 두 눈길과 부딪친다. 옥화, 뭔가 심상치 않은 사태를 직감한 듯 후다닥 얼굴에 구름이 낀다. 보고 있는 법운이 모든 잡념을 뿌리쳐 발길을 돌린다. 다시 한 바퀴 돌아오다가 그것을 본 옥화가 우뚝 서버리자 손을 잡고 돌고 있던 원의 고리가 무너지며 우르르 무너진다. 아랑곳없이 법운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 옥화.

< 풀 이 >

→ 본 장면만 보면 옥화와 법운은 '쌈'을 타고 있기보다는 헤어진 연인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따라서 새 인물이 등장해서 인물 간의 개선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③ 특정 인물에 의해 다른 인물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본 답안의 근거도 S#67에서 나옵니다.

< 지 문 >

저만큼 떨어져 서 있는 버드나무 아래로 법운이 다가온다. 송낙 아래서 그의 두 눈이 화경처럼 옥화를 쏘아 번뜩인다. 옥화의 첫소리가 약간 빨라짐에 따라 처녀의 발맞춤도 빨라진다.

< 풀 이 >

→ 옥화가 법운을 보자마자 첫소리가 빨라지고 발맞춤도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법운)에 의해 다른 인물(옥화)의 행동 변화(빨라짐)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3번은 옳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④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대비하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지문 내에서 가상 공간에 관한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⑤ 현재와 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지문에서 과거에 관한 장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인과 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5번은 옳지 않으므로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14

[정답 맞추기]

④ '옥화'는 강강술래 소리를 하며 '법운'을 잊으려 하고 있다.
→ 지문을 보면

< 지 문 >

저만큼 떨어져 서 있는 버드나무 아래로 법운이 다가온다. 송낙 아래서 그의 두 눈이 화경*처럼 옥화를 쏘아 번득인다. 옥화의 첫소리가 약간 빨라짐에 따라 처녀의 발맞춤도 빨라진다.

옥화 해가 지고 달떠온다.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하늘에다 베를 놓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구름 잡아 잉어걸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달은 잡아 묵 맨들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별을 잡아 무늬놓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버드나무 그늘에서 한걸음 달빛 속으로 나오는 법운. 저도 모르게 구경꾼들 등 뒤로 다가선다. 조리를 먹이며 돌아가던 옥화의 시선이 법운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굴에 함뿍 웃음이 핀다. 그러나 법운의 얼굴은 침울하기만 하다. 옥화, 달뜬 가슴을 못 이기듯 더욱 다그쳐 조리를 먹이자 처녀들의 발길은 일제히 허공에서 떴다 땅을 구르고 땅을 굴렀다 허공에 뜨면서 핑핑 돌아간다.

< 풀 이 >

→ 만약 옥화가 법운을 잊으려 했다면 옥화는 법운을 외면하고 강강 수월래만 집중을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옥화는 법운을 보면서 '함뿍 웃음'이 피고 '발걸음이 빨라진다'고 했으므로 옥화는 법운을 잊으려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상돌네'는 '옥화'의 생각과는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 1번의 2번 선지를 해설할 때 밝혔던 것과 같이 이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법운과 옥화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 60에서 상돌네는 '순천 박 참봉 맥 아들이 반하지 않고 배길 것이여!'라고 말했으므로 상돌네는 옥화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옥화와 엮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 '혜초'는 종소리를 듣고 '법운'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다.
→ 지문을 보면

< 지 문 >

S# 64. 쌍계사 종루

혜초 종소리에 한이 많구나..... 무슨 생각을 하며 울렸기에 소리가 그리도 애절하고.....
법운 (흠칫하며) 예?

혜초 무서운 업이로다. 인연이란 거미줄 같은 것! 한번 놀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느니라. 진작 끊어버려야지 정이 끊기가 어렵거든 멀리 떠나거라. 여기 있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네가 업원을 감당키 어려울레라.

법운
혜초 나무관세음보살.....

법운도 합장하고 입안에서 중얼거린다. 혜초, 서서히 법당 쪽으로 걸어간다. 선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오뇌에 싸이며 발길을 돌리는 법운.

S# 66. 산길 (밤)

송낙*을 쓰고 손에 단주*를 든 법운이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온다. 멀리 산 밑에서 들려오는 강강술래 소리. 법운, 걸음을 멈춘다.

< 풀 이 >

→ 혜초는 종소리를 듣고 '인연이란 거미줄 같은 것'이라 언급을 한 것을 보아 혜초는 법운의 마음이 어디로 가있는지를 대략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 '법운'은 '혜초'의 조언을 들은 뒤 쌍계사를 나서고 있다.
→ 지문을 보면

< 지 문 >

S# 64. 쌍계사 종루

혜초 무서운 업이로다. 인연이란 거미줄 같은 것! 한번 놀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느니라. 진작 끊어버려야지 정이 끊기가 어렵거든 멀리 떠나거라. 여기 있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네가 업원을 감당키 어려울레라.

법운
혜초 나무관세음보살.....

법운도 합장하고 입안에서 중얼거린다. 혜초, 서서히 법당 쪽으로 걸어간다. 선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오뇌에 싸이며 발길을 돌리는 법운.

S# 66. 산길 (밤)

송낙*을 쓰고 손에 단주*를 든 법운이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온다. 멀리 산 밑에서 들려오는 강강술래 소리. 법운, 걸음을 멈춘다.

< 풀 이 >

→ 혜초는 옥화와 정을 못 끊는 법운에게 '정이 끊기가 어렵거든 멀리 떠나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법운은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쌍계사를 내려온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운은 혜초의 조언을 듣고 쌍계사를 나갔으므로 3번은 옳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법운이 S#67에서 옥화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쌍계사를 나서지 않았으면 법운이 광장에서 보였을 리가 없겠죠.

④ '옥화'는 강강술래 소리를 하며 '법운'을 잊으려 하고 있다.
→ 지문을 보면

< 지 문 >

저만큼 떨어져 서 있는 버드나무 아래로 법운이 다가온다. 송낙 아래서 그의 두 눈이 화경처럼 옥화를 쏘아 번득인다. 옥화의 첫소리가 약간 빨라짐에 따라 처녀의 발맞춤도 빨라진다.

옥화 해가 지고 달떠온다.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하늘에다 베를 놓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구름 잡아 잉어걸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달은 잡아 목 맨들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별을 잡아 무늬놓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버드나무 그늘에서 한걸음 달빛 속으로 나오는 법운. 저도 모르게 구경꾼들 등 뒤로 다가선다. 조리를 먹이며 돌아가던 옥화의 시선이 법운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굴에 함뻍 웃음이 핀다. 그러나 법운의 얼굴은 침울하기만 하다. 옥화, 달뜬 가슴을 못 이기듯 더욱 다그쳐 조리를 먹이자 처녀들의 발길은 일제히 허공에서 떴다 땅을 구르고 땅을 굴렀다 허공에 뜨면서 핑핑 돌아간다.

< 풀 이 >

→ 만약 옥화가 법운을 잊으려 했다면 옥화는 법운을 외면하고 강강 수월래만 집중을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옥화는 법운을 보면서 '함뻍 웃음'이 피고 '발걸음이 빨라진다'고 했으므로 옥화는 법운을 잊으려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⑤ '소향'은 '법운'과의 관계에 대한 '옥화'의 말을 의심하고 있다.

→ 지문을 보면

< 지 문 >

S# 63. 옥화네 집 앞

소향 어휴-, 큰일이다. 허구헌 날 저놈의 종소리만 들음 안절부절 뉘이 빠지니....., 네가 정 그래싸른 종소리 안 들리는 먼데로 이사라도 가야 할랑가부다.

옥화 걱정 마이소. 우린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구마.

소향 (믿어지지 않는 듯)

< 풀이 >

→ 소향의 제시문에서 '믿어지지 않는 듯'이라 적혀있으므로 옥화의 말에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15

[보기 해설]

시나리오에는 모름지기 '카메라'의 문학입니다.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위치', 즉 시선입니다. 이 문제와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주관적 시점의 쇼트는 인물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1인칭'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객관적 시점의 쇼트는 서

술자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3인칭 시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은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① ㉠ : 법운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강술래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려 한다면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 말 만큼씩 한 삼십여 명 마을 처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아간다.

→ 법운이 보지 못하는 장면이라면 주관적 시점에서는 촬영해봤자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조명해줄 수 있는 '3인칭 시점'에서 촬영, 즉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1번은 옳다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 ㉡ : 법운의 눈은 옥화가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하고, 그의 시선으로 본 강강술래 장면은 법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하여 연결할 수 있겠군.

→ ㉡ 송낙 아래서 그의 두 눈이 화경처럼 옥화를 쏘아 번득인다. 옥화의 첫소리가 약간 빨라짐에 따라 처녀의 발맞춤도 빨라진다.

→ 법운의 눈에서 옥화를 볼 수 없으면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해야하고, 만약 그의 시선으로 강강술래 장면을 본다면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연결이 가능하므로 2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 ㉢ : 옥화의 시점에서 바라본 법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옥화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 저도 모르게 구경꾼들 등 뒤로 다가선다.

→ 주관적 시점의 쇼트의 정의 그대로 사용한다면 옥화의 시점에서 본 법운의 모습은 주관적 쇼트의 장면으로 촬영할 수 있으므로 3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 : 발길을 돌린 법운은 옥화가 멈추는 장면을 볼 수 없으므로 법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 옥화가 우뚝 서버리자

→ 법운은 옥화가 멈추는 장면을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는 촬영이 불가능하고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옥화를 촬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⑤ ㉤ : 법운과 옥화가 모두 소향을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 구경꾼들 속에 끼여 있다가 당황하는 소향.

→ 소향은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으므로 옥화와 법운 모두 소향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인 물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는 소향을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소향을 촬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16

2011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맞추기]

① 시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공간의 대비

[오답 피하기]

(가) :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少年)이었다'와 '오늘 ①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을 통해 '오늘'은 과거를 나타내던 1연 2행의 '그날'과 시간적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 '시(詩)를 쓰는 이 아래층에서는 아낙네들이 계(契)를 모은다'를 통해 시를 쓰는 화자의 모습과 계를 하기 위해 아래층에 모여 있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를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행하는 것인 반면, 시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과 거리를 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층은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공간을, 아래층은 일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 : '날개를 둘러싼 고운 가루가 천 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 내고 있다'에서 '고운 가루'와 '천 배나 무거운 빗방울'이라는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힘겨운 고난 속에서 연약한 나비가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잘 연상되고 있습니다.

17

[정답 맞추기]

⑤ (다)의 화자가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 (다)에서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면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이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와 살아야 했던 생활인으로서의 삶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 겪어야 하는 시인으로서의 삶 또한 언제나 창작의 고통 속에서 '부족함'과 '결핍'을 겪어야 하는 힘든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화자의 모습'은 '창작의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나)의 3연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다)의 화자가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모습은, '흰 나비'의 '고요한 날갯짓'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어.

→ (다)에서 '목이 마려워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부분에서 화자가 물을 마시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목이 마려워서입니다. 물론 조금 해석의 폭을 넓혀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모습을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 혹은 여기서 조금 발전 시켜 현실적인 일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창작에 따른 내면의 고통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나)의 '흰 나비'의 '고요한 날갯짓'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② (다)에서 '지상에 하강'하는 화자의 모습은, '그'가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 (다)에서 '층층대는 아홉 칸. 열에 하나가 부족한, 발바닥으로 지성(地上)에 하강(下降)한다'를 보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층계는 아홉 칸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홉은 열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홉은 무언가 모자라고 미치지 못하며 어딘가 부족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느낌 속에서 화자는 시 혹은 시 창작이라는 관념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 전념해야 하는 생활인이 되어 생활의 공간인 아래층(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즉 발바닥은 관념의 껍질을 벗은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의미하고 지상은 아낙네들이 계를 하거나 화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생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하강하는 화자의 모습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삶에 참여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화자의 모습은 창작의 고통을 견디며 그 고통을 맑게 승화시키는 시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나)에서의 '비를 건너가며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다)의 화자가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하고 나면, '흰 나비'와 같이 '몸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 (다)에서 '달려도 달려도 열에 하나가 부족한 그것은 골인 없는 백열경주(白熱競走)를 보면 아무리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해도 '골인 없는 백열경주'이기 때문에 생활인으로서의 삶(넉넉하고 풍요로운 경제적인 삶)은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자의 이런 질주는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창작의 고통을 이겨낸 후 거룩한 결과물을 얻게 된 시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나)의 '몸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갖게 된 흰 나비'와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다)의 화자가 '골인 없는 백열경주'를 하는 모습에서, '슬픔을 물리'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다)에서 '그것은 골인 없는 백열경주(白熱競走)'를 보면 먹고 살기 위해 끝이 없이 계속 최고조의 상태로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인 없는 백열경주'를 하는 화자의 이러한 모습은 창작의 고통을 이겨낸 모습을 의미하는 (나)의 '슬픔을 물리친 '저 사람의 모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8

[정답 맞추기]

- ③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게 된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신화적 시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가)에서 4연 1행의 '수염'을 통해 과거 소년이었던 '너와 나'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연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게 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유년 시절과는 달라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시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언덕'이라는 동일한 배경은, '너와 나'가 '유년 시절'로 회귀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 (가)에서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을 통해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화자가 현재 '언덕'을 오르며, 과거 어린 시절 '너'와 함께 올랐던 '언덕'을 회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회상의 내용이 현재의 배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의 회상에 있어서 '언덕'이라는 배경이 유년시절로 회귀함에 있어 하나의 매개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② '또다시 가슴이 등근 소년일 수 없구나'라는 표현에서, '오늘'이라는 현재적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가)에서 '또다시 가슴이 등근 소년일 수 없구나'에서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 후 다시 현재로 돌아 온 화자가 현재의 자신의 삶에 대해 씩씩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돌아본 후 화자가 지니게 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자신의 현재적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④ 현재의 시간을 '노을'에 대응시켜 '아침'이었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에서, 인생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알 수 있다.
- (가)에서 '오늘 ⑥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을 통해 화자는 싸늘한 노을이 지는 현재의 시간에서 아침이었던 유년 시절의 어느 한 시간대를 추억하고 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이러한 회상은 시간에 대한, 시간 속 인생의 흐름에 대한 순환적이고 신화적인 인식의 한 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 ⑤ '꿈 많은 소년'이었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신화적인 인식에서 비롯한 과거로의 회귀에 해당한다.
- (가)에서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少年)이었다'를 통해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상은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순환하는 순환적 시간관의 한 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적 시간관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이고 현실적인 시간관을 초월하는 시간관임기에 신화적 시간관이라고도 합니다.

19

[정답 맞추기]

- ⑤ ㉔ :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 (다)에서 '열에 하나가 부족한 ㉔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疾走)한다'를 보면 화자가 주체가 되어 열심히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㉓ :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 '㉓ 가벼운 날개 밑에 머-리 수평선(水平線)이 층계(層階)처럼 낮더라'를 통해 바다 위로 제비가 가볍고 평화롭게 날아가는 장면이 시각적으로 연상되고, 그러한 장면을 눈 앞에 두고 있을 화자의 평온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㉔ :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가)에서 '오늘 ㉔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을 보면 '얼음처럼 싸늘한'이라는 촉각 이미지와 '노을'이라는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㉔ : 모순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나)에서 '흰 나비가 소매도 걷지 않고 ㉔뽀뽀를 건너간다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비를 맞는다'와 '비를 맞지 않는다'라는 서로 반대되는 표현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빗속에서 나비가 위 아래로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④ ㉔ : 어순을 도치시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나)에서 '㉔ 그는 남몰래 가졌을까 옷 한 벌, 흰 재로 지어진'을 보면 '옷 한 벌'을 어순을 도치시켜 '흰 재로 지어진' 앞에 둠으로써 시인의 고통의 결과물인 '옷 한 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⑤ ㉕ :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 (다)에서 '열에 하나가 부족한 ㉕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疾走)한 단'를 보면 화자가 주체가 되어 열심히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